

金匱要略·婦人妊娠脈證并治第二十에 對한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진단학교실
여성원, 윤주현, 이태호, 이윤천, 정현영*, 금경수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regnancy' in Synopsis of Golden Chamber(金匱要略)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Won Kwang University
by Yeo Sung-won, Yun Ju-heon, Lee Tae-ho, Lee Yun-cheon, Jeong Heon-young,
Keum Kyoung-su

「Diagnosis and Treatment of pregnancy in Synopsis of Golden Chamber(金匱要略)」 stated about pregnancy nausea, stomachache, discharging blood, urine disadvantage, note and quickening uncertainty that appear during pregnancy. When diagnose pregnancy, taking a serious view pulse(脈診). If Soyakmaek(小弱脈) appears in Cheokmaek(尺脈), diagnose by pregnancy. Pregnancy nausea is reaction that often appear in pregnancy beginning. Light symptoms are treated naturally even if do not treat, heavy symptoms should treat certainly because can arrive for inheritance influencing to embryo. If spleen and stomach cause lack of Youngwi(營衛) harmony losing function, used Gyejitang(桂枝湯) Because spleen course stomach is weak, so, because there are been a lot of cold liquids, if vomiting catches continuously, used Geonganginsambanhahwan(乾薑附子半夏丸). When treat pregnancy stomachache because Yang(陽) is weak, it is cold and make to be warm by Bujatang(附子湯) in case have a stomachache. Because Chungimmaek(衝任脈) weak and cold, use Gyoaetang(膠艾湯) in case there are stomachache and bleeding. Because liver and spleen do not harmonize, use Dangguijakyaksan(當歸芍藥散) if stomachache and vertigo occur. ect.

There is no contents that foster embryo, but I am thought by something affected greatly at future generations.

Key Words: Golden Chamber, Diagnosis of pregnancy, Treatment of pregnancy

中 나타나는 病證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張仲景의 自

I. 序論

『金匱要略·婦人妊娠病脈證并治第二十』은 妊娠

序에 根據하면 『傷寒雜病論』은 모두 16卷으로 그 가운데 10卷은 傷寒을, 6卷은 雜病을 논하였는데 雜病에 대한 내용을 따로 모은 것이 『金匱要略方論』이므로, 婦人科와 관련된 內容은 없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隋書經籍志』에 “張仲景方 十五卷

*교신저자: 정현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063) 850-6808, jikjae@wonkwang.ac.kr

婦人方二卷”의 記錄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의 『金匱要略方論』에 있는 婦人科와 관련된 本篇을 포함한 「婦人產後病脈證治第二十一」, 「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의 三篇의 內容은 여기의 婦人方二卷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北宋의 林億 등이 整理하여 넣은 것으로¹⁾ 推定된다.

本篇은 全文이 11條로 구성되어 있으며, 湯方 2首·丸方 3首·散方 4首의 處方名이 記載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附子湯은 處方名만 있고 構成과 服藥法이 있지 않아서 실제로는 8首의 處方이 收錄되어 있다.

內容은 婦人들의 妊娠 中에 나타나는 疾病의 辨證과 治療를 논술한 것으로 妊娠의 診斷, 妊娠과 癥病의 鑑別 및 治療, 妊娠嘔吐, 妊娠腹痛, 妊娠下血, 妊娠小便難, 妊娠水腫, 妊娠養胎 등에 대하여 要點을 밝히고 있다.

『素問上古天真論』에 年齡에 따른 生理的 變化가 일어나는 가운데 妊娠과 관련된 內容²⁾이 있고, 『素問陰陽別論』에 妊娠脈에 대한 記載³⁾ 및 『黃帝內經』의 여러 篇에 閉經血崩帶下腸覃石瘕不孕 등의 病證에 대한 論述이 있어서 婦人病證의 後代의 辨證論治는 『黃帝內經』을 源流로 삼고 있다. 그러나 『黃帝內經』에 婦人病證에 대한 辨證治療의 구체적 內容은 적고 後代 婦人病의 證治는 本편의 內容을 기초로 발전하였으므로 本편이 婦人病 辨證治療의 現存하는 文獻 가운데 嚆矢라고 할 수 있다.

十月養胎에 關하여 체계적인 記述은 王叔和의 『脈經』에 처음 나와 있지만, 本편에 “懷身七月 太陰當養不養”의 구절을 보면 仲景이 『傷寒雜病論』을 著述하던 時期에 이미 十月養胎에 대한 內容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니 後代의 『巢氏諸病源候論』과 『婦人大全良方』에 記載되어 있는 十月養胎說은 本편의 影響을 받은 것이다.

현대의학에서는 妊娠期間 中 가능한 藥物의 服用

을 節制하고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 妊娠婦의 질병 治療에 限界가 있는 반면, 韓醫學에서는 妊娠 기간 동안에도 各種의 질병에 대하여 治療의 方法을 따로 두고 있어서 커다란 長점을 갖고 있다.

本 편은 妊娠의 診斷과 妊娠病證의 診斷과 治療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脈經』·『諸病源候論』·『千金要方』 등 여러 醫書에서 인용하고 있어 後代의 醫學에 큰 影響을 주었으나, 國內에서는 蔡⁴⁾가 原文의 懸吐와 註釋을 모아둔 것 이외에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여러 版本과 諸家의 書籍들을 比較하여 校勘과 註釋을 加하므로써 原文의 內容을 보다 精確히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本 편에 나오는 處方이 後代 醫家들에게 어떻게 活用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妊娠病證의 診斷과 治療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本 論文은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 總括 및 結語의 順序로 연구하였다.

1. 原文은 條文의 번호와 題目을 달았다.
2. 原文은 趙開美가 校刊한 『金匱要略方論』⁵⁾을 底本으로 하였다.
3. 懸吐는 蔡의 『金匱要略精解』⁶⁾를 參考하였다.
4. 校勘한 文獻과 略稱은 <표1>과 같다.
5. 本 論文에 引用한 註釋書는 <표2>와 같고, 註釋의 內容은 懸吐를 하여 脚註로 하였다.

1) 李克光. 金匱要略譯釋. 人民衛生出版社. 上海. 1993. p. 608.
 2) 素問上古天真論: 女子……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3) 素問陰陽別論: 陰搏陽別 謂之有者

4)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5) 張仲景 原著, 王叔和 撰次, 林億 校正,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 金匱要略方論. 裕昌德書局. 서울. 1960.
 6)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번호	書名	編著者	略稱
1	傷寒雜病論	張仲景	桂林古本
2	脈經	王叔和	脈經
3	外臺秘要	王燾	外臺
4	千金要方	孫思邈	千金
5	古今醫統正脈全書	王肯堂	醫統本
6	醫宗金鑑	吳謙 等	金鑑
7	金匱要略廣注	李炆	孤本
8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澗	康熙本
9	金匱要略心典	尤怡	尤本

표 1. 校勘한 文獻 및 略稱

번호	書名	著者	備考
1	金匱要略直解	程林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2	金匱玉函經二注	趙以德·周揚俊	
3	金匱要略心典	尤怡	
4	醫宗金鑑·金匱要略注	吳謙 等	
5	金匱要略淺注	陳念祖	
6	金匱要略廣注	李炆	
7	金匱玉函要略輯義	丹波元簡	
8	金匱要略淺注補正	唐宗海	
9	金匱要略發微	曹家達	
10	金匱要略論注	徐彬	
11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澗	

표 2. 選注書目

Ⅲ. 研究內容

第 1條. 妊娠의 脈證治

【原文】

師曰 婦人¹⁾得平脈⁽¹⁾이리가 陰脈⁽²⁾小⁽³⁾弱⁽⁴⁾하고 其人渴⁽²⁾하고 不能食하고 無寒熱하면 名妊娠⁽³⁾이니 桂枝湯主之라 方見利中이라 於法에 六十日이면 當有此證

4) 하니 設⁽⁶⁾有醫治逆⁽⁶⁾者하야 却⁽⁷⁾一月에 如吐下者⁽⁵⁾는 則絶之라

【校勘】

1) 婦人: 『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에는 “脈婦人”으로 되어 있다.

2) 其人渴: 「桂林古本」에는 “其人嘔”로 되어 있다.

3) 名妊娠: 『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에는 “名爲軀”로, 「桂林古本」에는 “此爲妊娠”으로 되어 있다.

4) 當有此證: 『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에는 “當有娠”으로 되어 있다.

5) 如吐下者: 『醫統本』·「桂林古本」·『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金鑑』·「孤本」·「康熙本」에는 “加吐下者”로 되어 있다.

【注釋】

- (1) 平脈: 病脈이 없는 것.⁷⁾
- (2) 陰脈: 尺脈을 가리킨다.
- (3) 小: 小脈으로 細脈과 같다. 細脈은 가늘기과 실과 같으나 손가락에 감응되는 것이 분명한 脈象이다.⁸⁾
- (4) 弱: 弱脈. 매우 軟弱하면서 沈細한 脈象.⁹⁾
- (5) 設: 假借之辭, 가령 설
- (6) 治逆: 誤治의 뜻.
- (7) 却: 退也, 물리칠 각

【國譯】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婦人이 脈은 正常인데 尺部에 小弱脈이 나타나고 渴症이 나고 飲食을 먹지 못하나 惡寒發熱이 없으면 妊娠이니 桂枝湯으로 主治한다.(處方은 「嘔吐噦下利病脈證并治第十七」에 있

7) 趙良仁: 婦人平脈者는 言其無病脈也라
 8)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益山. 2000. p. 100.
 9)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益山. 2000. p. 101.

다.) 妊娠한지 六十日 정도에 당연히 이러한 症狀이 있으나 만약 醫師가 잘못 治療하여 一箇月 뒤에 嘔吐와 泄瀉가 나타나면 모든 治療法을 그만 두어야 한다.

【考察】

可妊女性이 生理가 中斷되고 渴症이 있고 음식을 먹지 못하나 惡寒發熱의 증상이 없고 寸口에 전체적으로는 正常脈이 나타나지만 尺脈에만 小弱脈이 나타나는 것은 妊娠을 한 것이니 『素問腹中論』에 “何以知懷子之且生也……身有病而無邪脈也”라고 한 것과 같다.

尤怡는 尺部에 小弱脈이 나타나는 것은 妊娠初期에는 胎氣가 旺盛하지 않으며 또한 血이 胎兒를 養育하기 위하여 一時的으로 不足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尺脈은 腎이 主宰하고 胞絡이 腎에 連繫되어 있기 때문에 尺部에 小弱脈이 나타난다¹⁰⁾고 하였다.

또한 陰脈이 小弱한 것은 陰虛한 것이므로 반드시 內熱이 발생하여 口渴이 발생하며¹¹⁾, 胎兒가 이루어지면 中氣가 막혀서 胃氣가 上逆하여 下降하지 않으므로 惡心嘔吐를 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며¹²⁾ 邪氣가 없기 때문에 惡寒發熱이 없다¹³⁾.

“其人渴”에 대하여 「桂林古本」에는 “其人嘔”로 되어 있고, 尤怡는 口渴이 嘔吐와 의미가 通한다¹⁴⁾고 하였는데 伍는 懷妊初期에는 生理的 變化로 말미암아 惡心嘔吐가 있고 唾液이 增加하며 飲食을 偏嗜하며 眩暈과 倦怠 등이 發生하나 口渴은 比較的 적게 나타나므로 여기서의 ‘渴’은 口淡이 없고 단지 따뜻한 것을 마시려고만 하는 것¹⁵⁾이라 하였으니 ‘渴’은

惡心嘔吐로 口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如吐下者”에 대하여 尤怡 등은 原文을 “加吐下者”로 바꾸고 嘔吐와 泄瀉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¹⁶⁾ 보았고, “絶之”에 대하여서도 桂枝湯을 비롯한 治療를 禁絶하는¹⁷⁾ 것으로 보았으나, 陳紀藩은 醫師가 誤治를 하고 1箇月 뒤에 다시 吐法과 下法으로 治療하면 脾胃가 손상을 받아 氣血을 化生하는 根源이 적어져서 胎兒가 榮養되지 않아 胎動, 墮胎가 발생하고 未熟兒를 出産하기 쉬우니 마땅히 妊娠을 中斷시켜야 한다¹⁸⁾고 하였다.

妊娠한 뒤에 이를 吐法이나 下法으로 治療하면 脾胃가 損傷을 받아 胎兒를 榮養하지 못하여 胎動·墮胎·未熟兒의 出産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妊娠을 中斷시켜야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으나, 原文이 妊娠을 早期에 診斷하는 方法과 妊娠惡阻의 治法 및 誤治를 하였을 때의 處置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尤怡 등의 說이 타당하다고 思料된다.

妊娠脈을 原文에 “陰脈小弱”이라 하였으나 妊娠을 하게 되면 胎氣가 왕성해지고 胞宮에 氣血이 充滿하여 尺部가 滑數한 脈으로 바뀌니 『素問陰陽別論』에 “陰搏陽別 謂之有子”, 『素問平人氣象論』에 “手少陰脈動甚者 妊子也”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한 妊娠中 桂枝湯의 사용에 대하여 桂枝는 衛氣를 補益하고, 芍藥은 營氣를 滋養하고, 甘草는 和中하고, 生薑과 大棗는 津液을 運行하여 氣血을 서로 交通하게 하는 理致의 處方이니¹⁹⁾ 桂枝湯은 外證에 사용하면 解肌和營衛하고, 內證에 사용하면 化氣調陰陽하며²⁰⁾ 『素問六元正紀大論』에 “有故無殞”이라

10) 尤怡: 陰脈小弱者는 初時에 胎氣未盛하고 而陰方受蝕 故로 陰脈比陽脈小弱이라
 11) 魏荔澗: 陰虛必內熱生하고 內熱生必渴이라
 12) 黃元御: 胎妊方成하면 中氣塞滿하여 胃逆不降 故로 惡心嘔吐하여 不能甘食이라
 13) 尤怡: 無寒熱者는 無邪氣也라
 14) 尤怡: 其人渴 妊子者는 內多熱也라 一作嘔亦通이라
 15) 伍卓琪: 婦人在懷孕初期엔 由於生理上之改變하여 常有惡心嘔吐하고 唾液增加하고 飲食偏嗜急眩暈倦怠等證發生이오 惟渴證則較爲少見하니 本條所稱之渴은 大抵是口淡乏味하고 但思熱飲而已라

16) 尤怡: 六十日當有此證者는 謂妊娠兩月이니 正當惡阻之時오 設不知而妄治 則病氣反增하고 正氣反損하여 而嘔瀉有加矣라
 17) 尤怡: 絶之는 謂禁絶氣營藥也라
 18) 陳紀藩: 若醫者가 誤治過一箇月之後에 再可用吐下之法治之하면 則脾胃受損하여 氣血生化乏源하니 胎失榮養하여 往往引起胎動거나 或墮胎하며 亦易形成劣胎라 故爲了優生하니 當中斷妊娠이라
 19) 李紘: 桂枝湯은 用桂枝益衛하고 芍藥養榮하고 甘草和中하고 薑棗行津液하니 爲氣血交理之劑라
 20) 徐忠可: 桂枝湯은 外證得之면 爲解肌和營衛하고 內證得之면 爲化氣調陰陽라

하였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吳謙 등은 平脈이 나타나고 惡寒發熱의 증상이 없는데 桂枝湯을 쓰는 것은 妊娠으로 渴症이 있고 飲食을 먹지 못하는 것과는 合致되지 않으며 또한 文章의 의미가 끊어지고 이어지지 않으니 반드시 脫簡이 있다²¹⁾고 하였으니 吳謙 등이 錯簡이라고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第 2條. 桂枝茯苓丸證

【原文】

婦人이 宿⁽¹⁾有癥病⁽²⁾한대 經斷未及三月而得漏下不止⁽³⁾하며 胎動⁽⁴⁾在臍上者는 爲癥瘕害⁽¹⁾라 妊娠六月動者가 前三月에 經水利는 時胎⁽²⁾오 下血者가 後斷三月은 不血也⁽³⁾라 所以血不止者⁽⁴⁾는 其癥不去故也⁽⁵⁾라 當下其癥이니 桂枝茯苓丸主之라

桂枝茯苓丸方

桂枝 茯苓 牡丹⁽⁶⁾ 去心⁽⁵⁾ 桃仁去皮尖熬⁽⁷⁾⁽⁸⁾ 芍藥各等分

右五味를 末之하야 煉蜜⁽⁷⁾和⁽⁸⁾丸⁽⁸⁾호대 如兔屎大하고 每日食前服一丸이오 不知면 加至三丸⁽⁹⁾이라

【校勘】

1) 婦人宿有癥病 經斷未及三月 而得漏下不止 胎動在臍上者 爲癥瘕害: 『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에는 “婦人妊娠 經斷三月 而得漏下 下血四五日不止 胎欲動 在於臍下 此爲癥瘕害”로, 癥瘕害가 『醫統本』에는 “癥瘕”로, 『尤本』에는 “爲癥瘕害”가 “此爲癥瘕害”로 되어 있다.

2) 胎: 『醫統本』·『桂林古本』·『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尤本』·『金鑑』·『孤本』·『康熙本』에는 “胎也”로 되어 있다.

3) 後斷三月不血也: 『醫統本』·『脈經·卷九·平妊娠

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尤本』·『金鑑』·『孤本』·『康熙本』에는 “後斷三月不血也”로, 『桂林古本』에는 “斷後三月不血也”로 되어 있다. 國譯은 『桂林古本』을 따른다.

4) 所以血不止者: 『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에는 “所以下血不止者”로, 『金鑑』에는 “所以血不足者”로 되어 있다.

5) 其癥不去故也: 『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에는 “其症不去故也”로 되어 있다.

6) 牡丹: 『孤本』에는 “丹皮”로 되어 있다.

7) 去皮尖熬: 『金鑑』에는 “去皮尖”으로 되어 있다.

8) 煉蜜和丸: 『桂林古本』에는 “煉蜜爲丸”으로 되어 있다.

9) 加至三丸: 『桂林古本』에는 “漸加至三丸”으로 되어 있다.

【注釋】

(1) 宿: 素也, 오랏 숙

(2) 癥病: 癥瘕. 아랫배 속에 덩이가 생긴 病證.

(3) 漏下不止: 女性 性器로부터 피가 조금씩 계속 나오는 것.

(4) 胎動: 胎動不安. 妊娠이 中絶되려 할 때의 초기 증상. 즉 妊娠 때에 輕한 下腹痛, 腰痛, 적은 양의 자궁 출혈 등이 있는 것을 말한다.

(5) 去心: 한약재에서 木質部를 뽑아 버리는 것을 말한다.

(6) 熬: 乾煎, 볶을 오

(7) 煉蜜: 熟淸이라고도 함. 꿀을 약한 불에서 물기가 없어지도록 졸인 것.

(8) 和: 調味, 섞을 화

【國譯】

婦人이 평소에 癥病이 있는데 月經이 中斷된지 三個月이 되지 않았고 下血이 그치지 않으며 胎動이 臍上에 있는 것은 胎兒가 癥瘕로 害를 받은 것이다. 妊娠된지 六個月에 胎動이 있는 婦人이 月經이 中斷되기 三個月 前의 月經이 순조로웠으면 妊娠이고, 下

21) 吳謙 等: 然脈平無寒熱에 用桂枝湯는 與妊娠渴不能食者로 不合하며 且文義斷續不純하니 其中必有脫簡이라

血이 있었던 婦人이 月經이 三個月 동안 中斷된 것은 衄血이 있기 때문이다. 漏下不止가 되는 것은 癥瘕가 除去되지 않았기 때문이니 그 癥瘕를 除去해야 마땅하니 桂枝茯苓丸으로 主治한다.

桂枝茯苓丸方

桂枝 茯苓 牡丹去心 桃仁去皮尖熬 芍藥各等分

以上の 다섯 가지 藥材를 가루를 내어 煉蜜에 반죽하여 兔屎대로 丸을 만들고 每日 食前에 一丸씩 服用하며 效果가 없으면 三丸까지 늘일 수 있다.

【考察】

본 條文은 癥病으로 月經이 中斷된 것과 妊娠으로 月經이 中斷된 것의 鑑別과 그 治法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다.

尤怡 등은 宿病의 氣가 胎氣를 害치는 것²²⁾이라 하여 妊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妊娠한 상태에서 癥瘕가 있어서 이를 치료하는데 胎兒가 손상받을 것을 염려하여 峻烈한 下劑를 쓰지 않고 緩慢한 桂枝茯苓丸을 사용한다²⁴⁾고 하였다.

桂枝茯苓丸의 桂枝와 芍藥은 하나는 陽이고 하나는 陰이며; 茯苓과 丹皮는 하나는 氣이고 하나는 血이니 寒溫을 調節하고 正氣를 扶助하는 것이다. 桃仁으로써 破惡血하고 癥瘕를 消散한다. 또한 癥瘕는 처음에 반드시 寒邪로 인하니 桂枝가 능히 寒邪를 없애고, 癥瘕가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濕熱이 있어서 窠囊을 이루니 茯苓으로 滲濕하며, 牡丹皮는 清熱하고, 芍藥으로 肝血을 收斂하고 脾를 도와서 統血하게 하니 正氣를 培養하면 邪氣는 除去된다.²⁵⁾

22) 尤怡: 癥瘕害者는 宿病之氣가 害其胎氣也라

23) 謝觀: 癥瘕害는 謂孕婦養胎之新血이 內宿癥瘕阻而爲害也라

24) 尤怡: 桂枝茯苓丸은 下癥之力이 頗輕且緩하니 蓋恐峻厲之藥으로 將并傷其胎氣也라

25) 徐彬: 藥用桂枝茯苓丸者는 桂枝芍藥은 一陰一陽이오 茯苓丹皮는 一氣一血이니 調其寒溫하고 扶其正氣라 桃仁以之破惡血하고 消癥癖이라 …… 且癥之初에 必因寒하니 桂能化氣而消其本寒이오 癥之成은 必挾濕熱爲窠囊하니 苓滲濕氣라 丹清血熱하고 芍藥斂肝血而扶脾하야 使能統血하면 則養正即所以去邪耳라

그러나 胎動은 孫思邈이 妊娠期間의 養胎를 표현한 “四月形體成 五月能動”²⁶⁾의 句節에서 알 수 있듯이 妊娠 4個月(妊娠 16週) 以上이 되어야 心臟도 微弱하나마 움직이기 시작하고 手足도 극히 微弱한 動作을 시작하여²⁷⁾ 비로소 胎動이 있으니 3個月이 되지 않은 時點에는 胎動이 없고, 胎動의 部位도 일반적으로 妊娠 56個月이 되어야 子宮이 배꼽부위까지 팽배하므로 原文에서처럼 “胎動在臍上”이 되려면 妊娠 56個月이 지난 뒤에야 가능하므로 原文의 “經斷未及三月”과 맞지 않는다. 또한 本편에서 妊娠을 한 경우의 표현을 “妊娠”·“懷娠”·“懷妊”·“懷身” 등으로 指示하고 있는 반면 本 條文에는 단지 “婦人”으로만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原文에 “胎動”이라 한 것은 癥瘕가 移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癥瘕害’는 妊娠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原文의 “後斷三月不血也”는 「桂林古本」과 같이 “斷後三月衄也”로 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므로 本 條文은 ‘癥瘕害’는 婦人이 평소에 癥病이 있는 상태에서 月經이 中斷된지 3個月이 되지 않은 時期에 漏下不止가 있고 胎動과 類似한 症狀이 있는 것이다. 婦人이 평소 癥病이 있는 상태에서 妊娠을 하여 妊娠 3個月內에 癥瘕가 배꼽 위쪽까지 커지고 이로 인하여 出血도 있고 癥瘕가 마치 胎動처럼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思料된다.

月經이 中斷된지 6個月의 時點에서 妊娠인지 아니면 癥瘕로 인하여 胎動과 비슷한 症狀이 있는 것인지를 鑑別하는 방법은 月經이 中斷되기 以前의 3個月 동안의 月經이 正常이었다면 이는 妊娠을 確診할 수 있고, 月經이 中斷되기 以前의 3個月 동안의 月經에서 非正常的인 下血이 있었다면 이는 妊娠이 아니라 癥瘕가 배꼽부위까지 커지고 瘀血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原文의 “後斷三月不血也”는 「醫統本」

26) 『千金要方·卷第二 養胎第三』“妊娠一月始胚 二月始膏 三月始胞 四月形體成 五月能動 六月筋骨立 七月毛髮生 八月藏府具 九月穀氣入胃 十月諸神備”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p. 24.

27) 宋炳基. 漢方婦人科學. 행림출판. 1990. 서울. p. 63.

등에 “後斷三月衄也”로 하는 것이 더욱 妥當하다. 또한 下血이 그치지 않는 것은 癥瘕가 除去되지 않은 것이므로 治法은 癥瘕를 除去하는 것으로 삼았으니 이른바 『素問·六元正紀大論』의 “有故無殞”의 뜻이다.²⁸⁾

第 3條. 附子湯證

【原文】

婦人이 懷娠¹⁾⁽¹⁾ 六七月에 脈弦⁽²⁾ 發熱하고 其胎愈⁽³⁾ 脹⁽⁴⁾ 하며 腹痛惡寒者⁽⁵⁾ 少腹如扇⁽⁶⁾ 하면 所以然者는 子臟開⁽⁶⁾ 故也니 當以附子湯으로 溫其臟⁽⁴⁾ 이라 方未見⁽⁵⁾

【校勘】

- 1) 懷娠: 「尤本」에는 “懷妊”으로, 「孤本」에는 “懷孕”으로 되어 있다.
- 2) 其胎愈脹: 『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에는 “其胎踰腹”으로 되어 있다.
- 3) 腹痛惡寒者 少腹如扇: 『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에는 “腹痛惡寒 寒著小腹如扇之狀”으로, 「桂林古本」·「尤本」에는 “腹痛惡寒 少腹如扇”으로, “少腹如扇”이 「醫統本」에는 “少腹加扇”으로 되어 있다.
- 4) 溫其臟: 「桂林古本」에는 “溫之”로 되어 있다.
- 5) 方未見: 「桂林古本」에는 “附子湯方 附子二枚 炮去皮破八片 茯苓三兩 人參二兩 白朮四兩 芍藥三兩 右五味 以水八升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日三服”으로 되어 있다.

【注釋】

- (1) 懷娠: 妊娠의 뜻.
- (2) 弦: 弦脈. 體狀이 바로고 곧으면서 長하여 絃樂器의 줄을 누르는 것 같은 脈.²⁹⁾
- (3) 愈: 益也, 더할 矣.

28) 程林: 若下血不止는 爲癥未去故也니 必當去其癥이라 內經에 曰 有故無殞이라하니 亦無殞也라 癥去則胎安也라
 29) 성백만.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익산. 2000. p. 99.

- (4) 脹: 腹滿, 배불룩할 狀
- (5) 少腹如扇: 少腹冷을 가리킨다.³⁰⁾ 扇: 扇凉, 부채질할 션
- (6) 子臟開: 子臟은 女子胞, 胞臟, 胞宮이라고도 하며 子宮을 말한다. 子臟開는 子宮이 寒冷한 것을 말한다.³¹⁾

【國譯】

婦人이 懷妊한지 六·七個月에 脈이 弦하고 熱이 나며 배가 正常 位置보다 부르고 배가 아프고 惡寒한 사람이 少腹이 부채질하듯 寒冷하면 이는 子宮이 寒冷하기 때문이니 附子湯으로 子宮을 따뜻하게 해야 마땅하다.

【考察】

『說文解字』에 “妊 身懷孕也”라 하였고, “娠 女妊身動也”라 하였으니 妊娠初期를 妊, 胎動이 있기 시작한 때부터 娠이라 한다.³²⁾

子臟은 子宮을, 開는 收斂되지 않는 것을 뜻하니³³⁾ ‘子臟開’는 子宮이 寒冷한 것으로 陽虛陰盛하여 胞胎를 約束하지 못하는 것이다.³⁴⁾

惡寒發熱腹痛 등의 症狀으로 外感表證으로 誤認할 수 있으나, 外感風寒의 病은 脈이 浮緩하거나 浮數하되 弦하지는 않으며, 또한 內傷冷濕으로 인한 病은 腹痛腹脹하되 胎兒가 갑자기 脹滿하게 되지는 않으며, 外感風寒으로 인한 惡寒은 背部가 惡寒하되 少腹部가 惡寒하지는 않기 때문에 外感風寒의 病이 原因은 아니다.³⁵⁾ 弦脈은 虛證과 寒證으로 인한 것이고, 陽氣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막히기 때문에 發熱이 나타나고, 陰寒의 氣가 거슬러서 脹滿하

30) 陳紀藩.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 658.
 31) 陳紀藩.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 658.
 32) 伍卓琪: 說文謂 妊은 身懷孕也오 娠은 女妊身動也라하니 可知受孕之初期曰妊이오 胎動以後曰娠이라
 33) 徐彬: 子臟者는 子宮也오 皆는 不斂也라
 34) 程林: 陽虛陰盛하야 不能約束胞胎 故로 子臟爲之皆也라
 35) 魏荔洞: 婦人懷妊七八月矣에 脈弦發熱하고 其胎愈暴脹大하며 而裡腹痛하고 表惡寒은 無乃類於內懷胎孕하고 外感風寒乎아 但外感風寒之爲病은 脈或浮緩浮緊而不弦하고 卽內傷冷濕之爲病은 腹痛滿而胎不致暴脹하고 且外感風寒之惡寒은 在背而不在少腹이라

게 되며 內部에 陽이 없기 때문에 腹痛惡寒하는 것이다.³⁶⁾ 陽虛陰盛하게 된 原因은 命門火의 不足이다. 腎은 開闔을 主管하는데 命門火가 虛衰하면 氣가 흠어져서 열리기는 하되 다시 閉闔되지 않으니 大小便의 경우에는 아래로 쏟아지듯이 婦人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理致이다.³⁷⁾ 따라서 “當以附子湯 溫其藏” 하는 것으로 治法을 삼았다.

附子湯에 대하여 原文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傷寒雜病論』의 「桂林古本」에 “附子湯方 附子二枚 炮去皮破八片 茯苓三兩 人參二兩 白朮四兩 芍藥三兩 右五味 以水八升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日三服”이라 하여 構成과 服藥法이 구체적으로 記載되어 있다. 附子와 人參으로 溫補하고 寒邪를 없애고, 白朮과 茯苓으로 健脾燥濕하며 芍藥으로 營血을 고르게 하고 血痺를 통하게 하여 溫經扶陽하므로 適當하다.³⁸⁾ 일반적으로 附子は 妊娠禁忌藥으로서 사용하기 어려우나 『素問六元正紀大論』에 “有故無殞”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사용할 수 있으나 長期間 사용할 수 없고 단지 以上の 症狀이 있을 때 잠시 사용할 것으로 推論된다.

第 4條. 芎歸膠艾湯證

【原文】

師曰 婦人이 有漏下⁽¹⁾者하고 有半產後⁽²⁾에 因⁽³⁾續下血이 都⁽⁴⁾不絶者하고 有妊娠下血者⁽⁵⁾하니 假令妊娠에 腹中痛하면 爲胞阻⁽⁶⁾니 膠艾湯主之라

芎歸膠艾湯方 又方加乾薑二兩 胡氏治婦人胞動 無乾薑⁽⁴⁾

芎藭二兩 阿膠二兩 甘草二兩 艾葉三兩 當歸三兩

36) 趙以德: 妊之六七月은 筋骨堅強之時라 若其脈弦하면 弦爲虛 爲寒이오 內格其陽於外而發熱이오 陰寒內逆而爲脹이오 腹痛惡寒者는 其內無陽 故로 子臟開하니 少腹如扇也라
37) 魏荔澗: 腎主開闔하고 命門火衰氣散하야 能開而不能闔하니 在二便則爲下脫이오 婦人子臟之開도 亦此理也라
38) 魏荔澗: 急溫臟回陽하야 以救其胎하니 法當附子湯이라 注에 云 方未見이라하니 然이나 方固載於傷寒論中少陰篇에 用附子而佐以參朮하야 固氣安胎가 洵善治也라

芍藥四兩 乾地黄三兩⁽⁵⁾

右七味를 以水五升과 淸酒三升으로 合煮⁽⁶⁾하야 取三升하고 去滓⁽⁷⁾하야 內⁽⁷⁾膠令消盡하야 溫服一升호래 日三服이오 不差⁽⁸⁾면 更⁽⁹⁾作⁽⁸⁾이라

【校勘】

- 1) 有半產後: 『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에는 “有半生後”로 되어 있다.
- 2) 有妊娠下血者: 「桂林古本」에는 없다.
- 3) 爲胞阻: 『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에는 “爲胞漏”로, 「桂林古本」에는 “此爲胞阻”로 되어 있다.
- 4) 又方加乾薑二兩 胡氏治婦人胎動無乾薑: 「桂林古本」에는 이 문장이 없고, “胡氏治”가 「醫統本」에는 “胡洽治”로 되어 있다.
- 5) 乾地黄三兩: 底本에는 “三兩”이 없었으나, 「桂林古本」에는 “地黄六兩”으로, 「尤本」에는 “乾地黄七兩”으로, 「孤本」에는 “乾地黄三兩”으로 되어 있어 「孤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 6) 合煮: 「桂林古本」에는 “煮六味”로 되어 있다.
- 7) 去滓: 「孤本」에는 “去渣”로 되어 있다.
- 8) 不差更作: 「桂林古本」에는 없다.

【注釋】

- (1) 漏下: 漏下不止. 女性 性器의 不定 出血. 崩은 갑자기 피가 많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漏는 피가 조금씩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 (2) 半產: 墮胎, 小産이라고도 함. 妊娠 3개월 以上으로 胎兒가 이미 形成된 뒤에 流産하는 것.
- (3) 因: 襲也, 잇을 인
- (4) 都: 都, 모두 도
- (5) 胞阻: 婦人이 妊娠한 뒤 恒상 腹痛이 나타나고 때로는 陰道에 出血하는 病證.
- (6) 滓: 澱也, 찌끼 재
- (7) 內: 入也, 들일 납
- (8) 差: 病癒, 병나을 차

(9) 更: 再也, 다시 갠

【國譯】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婦人에 있어서 漏血이 그치지 않는 사람도 있고, 半産한 뒤에 下血이 그치지 않는 사람도 있고, 妊娠한 뒤 下血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妊娠 中에 下血하면서 腹中이 아프면 胞阻이니 膠艾湯으로 主治한다.

芎歸膠艾湯方(乾薑二兩이 加味된 處方도 있으며, 胡氏는 婦人胞動을 치료하는데 乾薑을 加味하지 않았다.)

芎藭二兩 阿膠二兩 甘草二兩 艾葉三兩 當歸三兩 芍藥四兩 乾地黃三兩

이상 일곱 가지 약재를 물 五升과 淸酒 三升到에 넣고 한꺼번에 달여서 三升을 取하고 찌꺼기를 없애고 阿膠를 넣고 다 녹으면 一升씩 하루에 세 번 溫服한다. 差度가 없으면 다시 服用한다.

【考察】

본 條文은 婦人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下血의 證治를 論술하였다. 原文에 있듯이 婦人에게서 非正常的인 漏下不止가 나타나는 경우, 半産된 뒤에 계속 下血이 나타나는 경우, 妊娠한 중에 下血이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妊娠한 뒤 腹痛이 있는 下血을 ‘胞阻’라 하였다.

胞阻의 原因은 胞氣가 막혔기 때문인데 胞氣가 막히는 것은 氣가 虛寒하기 때문이니 氣가 虛寒하면 血이 반드시 不足하여 엉기게 되고, 血이 엉기면 氣는 더욱 막혀서 痛症이 발생된다. 氣가 막히고 血이 엉기면 또한 內部에서 虛熱이 발생하고 血이 엉기면 더욱 엉겨서 나머지 血도 그치지 않고 흘러나오니 심하면 胎를 損傷하여 搖動하게 하여 마침내 墜胎하게 되므로³⁹⁾ 결국 胞阻의 原因은 氣血虛寒이라 할 수 있다. 伍는 胞胎가 막히고 不安하여 下血腹痛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脈經』에 “胞漏”, 『巢氏諸病源候

39) 魏荔洞: 假令妊娠而下血腹中痛은 此胞氣阻滯之故也라 胞氣何以阻아 以氣虛寒也라 氣虛寒則血必不足而凝하고 凝則氣愈阻而作痛하고 氣阻血凝則又內生虛熱하며 血之凝者尙凝하여 而餘血遂漏不止하니 甚則傷胎而動하고 動而竟墜라

論』에 “漏胞”라고 한 것이 의미에 더욱 合當하다⁴⁰⁾고 하였다.

芎歸膠艾湯의 川芎은 血이 엉긴 것을 運行하고, 阿膠甘草當歸乾地黃芍藥은 補血하며, 艾葉은 子臟의 血을 따뜻하게 한다.⁴¹⁾ 魏荔洞은 엉긴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疏通되면 도리어 下血이 그친다고 하여 寒證이 있으면 乾薑을, 熱證이 있으면 燒存性으로 한 乾薑 즉 黑薑을 加味하여 많은 효과가 있다⁴²⁾고 하였다. 本方은 虛證의 子宮出血에 효과가 있으나 子宮出血의 原因이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細心하게 原因을 살펴서 치료하여야 한다.⁴³⁾

淸酒를 사용하여 藥을 달인 것은 血液의 運行을 돕기 위한 것이며⁴⁴⁾, 또한 芍藥과 乾地黃의 藥性이 涼하기에 性質이 溫한 淸酒로 涼한 藥性을 緩和시키기 위함이다.

第 5條. 當歸芍藥散證

【原文】

婦人懷妊¹⁾에 腹中疝¹⁾痛하면 當歸芍藥散主之라

當歸芍藥散方

當歸三兩 芍藥一斤 一作六兩²⁾ 茯苓四兩 白朮四兩 澤瀉半斤 芎藭半斤 一作三兩³⁾

右六味를 杵²⁾爲散하고 取方寸匕³⁾하야 酒和日三服이라

【校勘】

1) 懷妊: 「醫統本」·『金鑑』·「孤本」에는 “懷娠”

40) 伍卓琪. 金匱婦科研究. 國立中國醫藥研究所. 臺北. 1997. p. 28.

41) 魏荔洞: 用芎藭은 行血中之凝하고 阿膠甘草當歸地黃芍藥五味는 全補胞血之虛하고 艾葉은 溫子臟之血이라

42) 魏荔洞: 寒證見하면 加乾薑하고 熱證見者는 乾薑燒灰存性하니 開凝通阻하면 而血反止矣라

43) 伍卓琪. 金匱婦科研究. 國立中國醫藥研究所. 臺北. 1997. p. 28.

44) 李炆: 煮以淸酒는 欲其行也라

으로 되어 있다.

2) 芍藥一斤一作六兩: 『醫統本』·『桂林古本』·『金鑑』·『孤本』에는 “芍藥一斤”으로 되어 있다.

3) 芎藭半斤一作三兩: 『醫統本』에는 “芎藭半斤乙作三兩”으로, 『尤本』에는 “川芎三兩”으로, 『金鑑』에는 “芎藭半斤”으로 되어 있다.

【注釋】

(1) 疝: 腹中急痛, 뱃속급히아플 교.

(2) 杵: 春杵, 공이 저

(3) 方寸匕: 가루약의 量을 計量할 수 있게 만들어 쓰던 약순가락의 하나. 네모 1치 되는 약순가락을 말한다.

【國譯】

婦인이 懷妊하였을 때 腹中이 疝痛하면 當歸芍藥散으로 主治한다.

當歸芍藥散方

當歸三兩 芍藥一斤 (어느 곳에는 六兩으로 되어 있다.) 茯苓四兩 白朮四兩 澤瀉半斤 芎藭半斤(어느 곳에는 三兩으로 되어 있다.)

以上 여섯 가지 藥材를 가루로 만들어 方寸匕만큼 술에 타서 하루에 세 번 복용한다.

【考察】

본 條文은 妊娠時 肝脾不和의 腹痛의 證治를 敘述하였다. 趙以德은 앞의 芎歸膠艾湯을 사용하는 胞阻腹痛과는 달리 脾土가 木邪의 侵犯을 받아서 穀氣가 運行되지 않고 濁滯이 아래로 흘러서 陰血을 막아서 腹痛이 된 것이라고 하였고⁴⁵⁾, 尤怡는 血이 不足하여 水氣가 侵犯하면 胎兒가 길러지지 않고 도리어 害를 받아서 腹痛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趙以德의 見解도 뜻이 통한다⁴⁶⁾고 하였으니 肝脾不和로 인한 腹痛으로 思料된다.

45) 趙以德: 此는 與胞阻痛者로 不同하니 因脾土爲木邪所克하여 穀氣不學하고 濁滯下流하여 以塞搏陰血而痛也라
46) 尤怡: 血不足而水侵하면 則胎失其所養하여 而反得其所害矣니 腹中能無疝痛乎아……趙氏曰……亦通이라

當歸芍藥散은 芍藥을 다른 藥材보다 몇 배를 써서 肝木을 瀉하고 陰血이 막힌 것을 疏通시켰으며, 川芎과 當歸로 補血止痛하고, 茯苓으로 滲濕하여 濕氣를 小便을 통하여 내보내고, 白朮으로써 益脾燥濕하였으며, 茯苓과 澤瀉로 쌓인 것을 運行시켜서 小便을 따라 排出시켰다.⁴⁷⁾

第 6條. 乾薑人參半夏丸證

【原文】

妊娠에 嘔吐不止하면 乾薑人參半夏丸主之라

乾薑人參半夏丸方

乾薑一兩 人參一兩 半夏二兩

右三味를 末之하여 以生薑汁으로 糊爲丸⁽¹⁾ 如梧子大^{1x2)}하고 飲服十丸²⁾ 호대 日三服³⁾이라

【校勘】

1) 如梧子大: 『尤本』에는 “梧子大”로, 『金鑑』에는 “加梧子大”로, 『桂林古本』에는 “如梧桐子大”로 되어 있다.

2) 飲服十丸: 『孤本』에는 “飲服十三丸”으로, 『桂林古本』에는 “每服五丸”으로 되어 있다.

3) 日三服: 『桂林古本』에는 “日三服 飲下”로 되어 있다.

【注釋】

(1) 糊爲丸: 糊丸, 麵糊丸이라고도 함. 한약가루를 꿀로 반죽하여 둥글게 만든 丸劑.

(2) 梧子大: 丸劑 1丸의 크기가 오동나무 씨 크기 만한 것을 말한다. 약가루를 사방 1치되는 약순가락으로 한 숟가락 떠서 꿀로 반죽하여 梧子大 10丸을 만들 수 있다. 梧子大 1丸은 대략 0.3~0.4g에 해당한다.

【國譯】

47) 趙以德: 用芍藥多他藥數倍하여 以瀉肝木하고 利陰塞하며 以與芎歸로 補血止痛하고 又佐茯苓滲濕하여 以強於小便也 오 白朮은 益脾燥濕하고 茯苓은 行其所積從小便出이라

妊娠하였을 때 嘔吐가 그치지 않으면 乾薑人參半夏丸로 主治한다.

乾薑人參半夏丸方

乾薑一兩 人參一兩 半夏二兩

以上 세 가지 藥材를 가루를 내어 生薑汁으로 풀을 썬어 梧子大 크기로 丸을 만들어 물에 十丸씩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考察】

惡阻는 惡心阻食의 준말로서, 妊娠惡阻의 病名은 隋代의 『巢氏諸病源候論』부터 보이기 始作하는데 “惡阻는 가슴이 답답하며 머리가 어지럽고 四肢가 답답하고 아프며 몸이 나른하여 움직이려 하지 않고 음식 냄새를 맡기 싫어하며 짜고 신 果實을 먹으려 하며 잠을 많이 자고 적게 움직이는 것이다”⁴⁸⁾고 하였다. 1條의 “不能食”과 本條의 “嘔吐不止”가 이에 해당된다.

妊娠에 嘔吐不止하는 것은 下實上虛한 것이 原因으로 위로 胃가 虛하면 痰飲이 엉기고 쌓여서 嘔吐가 발생되고, 아래로 氣가 實하면 반드시 위로 거슬러 치밀어 오르니 또한 痰飲을 搖動시켜서 嘔吐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乾薑으로 溫益脾胃하고, 半夏로 上逆된 氣를 풀어 내리고, 人參으로 補中益氣하는 乾薑人參半夏丸을 사용한다.⁴⁹⁾

乾薑人參半夏丸을 만들 때 薑汁을 사용하는 것은 半夏의 毒性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半夏가 妊娠 禁忌藥이므로 사용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史料된다.

高는 妊娠嘔吐不止를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였다. 즉 妊娠을 하면 母體의 氣血이 나뉘어 胎兒를 養育하기에 母體의 氣血이 虛하게 되므로써 寒이 발생

되고 飲食의 氣機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嘔吐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胞胎가 아래에 있어서 生氣가 모르는 사이에 날로 增加되는 趨勢에 있어서 위로 치밀어 오르기 때문인데 妊娠嘔吐不止는 이 두 가지를 兼한다⁵⁰⁾고 하여 下實上虛를 설명하였다.

妊娠惡阻의 起因에 대한 現代醫學的 論述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受精卵이 子宮에 着床된 뒤에 生理的 變化가 발생하여 神經系에 영향을 주어 神經系에서 反射的으로 일어나는 反射性 嘔吐로서 대개는 輕微한 편이며, 다른 하나는 妊娠中毒症처럼 妊娠된 뒤에 體內에 毒素가 발생하여 循環系에 영향을 주어 嘔吐가 발생하는 것이다. 1條의 경우는 前者에, 本條는 後者에 해당된다.⁵¹⁾

第 7條. 歸母苦參丸證

【原文】

妊娠¹⁾에 小便難이나 飲食如故하면 歸母苦參丸²⁾主之라

歸母苦參丸方 男子加滑石半兩

當歸四兩 貝母四兩 苦參四兩

右三味를 末之하여 煉蜜丸³⁾ 如小豆大¹⁾하고 飲服三丸호대 加至十丸⁴⁾이라

【校勘】

1) 妊娠: 『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에는 “婦人妊娠”으로 되어 있다.

2) 歸母苦參丸: 『醫統本』·『桂林古本』·『尤本』·『金鑑』·『孤本』에는 “當歸貝母苦參丸”으로 되어 있다.

3) 煉蜜丸: 『醫統本』·『桂林古本』·『金鑑』에는 “煉蜜爲丸”으로 되어 있다.

4) 加至十丸: 『桂林古本』에는 “日三服”으로 되어

48) 巢元方: 惡阻者는 心中憤悶하며 頭眩하며 四肢煩疼하며 懈惰不欲執作하며 惡聞食氣하며 欲嘔鹹酸果實하며 多睡少起라

49) 魏荔洞: 妊娠嘔吐不止者는 下實上必虛라 上虛胸胃必痰飲凝滯而作嘔吐하고 且下實氣하면 必逆而上衝하니 亦能動痰飲而爲嘔吐라 方用乾薑溫益脾胃하고 半夏開降逆氣하고 人參補中益氣라

50) 高學山. 金匱要略脈證治療. 文光圖書有限公司. 臺北. p. 269.

51) 伍卓琪. 金匱婦科研究. 國立中國醫藥研究所. 臺北. 1997. p. 22.

있다.

【注釋】

(1) 小豆大: 팔알 크기.

【國譯】

妊娠 중에 小便을 보기는 어려우나 飲食은 正常的으로 먹으면 歸母苦參丸으로 主治한다.

歸母苦參丸方(男子는 滑石半兩을 加味한다)

當歸 貝母 苦參 各四兩

以上的 세 가지 藥材를 가루를 내어 煉蜜로 小豆大 크기로 丸을 만들어 물로 三丸을 복용하되 十丸까지 늘려서 服用할 수 있다.

【考察】

본 條文은 妊娠中 小便難에 대하여 論술하였다. 妊娠 期間에 頻尿·尿急·淋漓澀痛·少腹急痛 등의 病證이 나타나는 것을 子淋 또는 妊娠小便淋痛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頻尿·尿急·淋漓澀痛·少腹急痛의 症狀은 없이 단지 小便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飲食을 正常과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中焦로 인한 病이 아니고 또한 腹滿·身重 등의 症狀이 없는 것으로 水氣가 運行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血虛하여 熱이 鬱結되어 津液이 運行되지 않아서 小便不利가 된 것이다.⁵²⁾ 歸母苦參丸의 當歸는 補血和血하고 活血潤燥하는 效能이 있고, 貝母는 利氣하고 解鬱散結하며, 苦參은 瀉火清熱하고 除濕利尿하니 小便難은 血虛濕熱로 氣가 맺혀서 燥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⁵³⁾

第 8條. 葵子茯苓散證

【原文】

52) 尤怡: 小便難而飲食如故하면 則病不由中焦出하고 而又無腹滿身重等證하면 則更非水氣不行하니 知其血虛熱鬱하여 而津液澀少也라

53) 張玉清 編著 胡庚辰 評注.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p. 413.

妊娠¹⁾에 有水氣¹⁾하야 身重²⁾ 小便不利 洒淅²⁾惡寒³⁾하고 起卽頭眩³⁾하면 葵子茯苓散⁴⁾主之라

葵子茯苓散方

葵子⁴⁾一斤⁴⁾ 茯苓三兩⁵⁾

右二味를 杵爲散하야 飲服方寸匕호대 日三服⁶⁾이오 小便利則愈라

【校勘】

1) 妊娠: 『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에는 “婦人妊娠”으로 되어 있다.

2) 身重: 「桂林古本」에는 없다.

3) 洒淅惡寒: 『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에는 “洒洒惡寒”으로 되어 있다.

4) 葵子茯苓散: 『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에는 “葵子茯苓湯”으로 되어 있다.

4) 葵子一斤: 「尤本」·『金鑑』에는 “葵子一升”으로 되어 있다.

5) 茯苓三兩: 「孤本」에는 “茯苓一斤”으로 되어 있다.

6) 日三服: 「尤本」에는 “日二服”으로 되어 있다.

【注釋】

(1) 水氣: 浮腫 또는 水腫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病因으로 볼 때는 水氣라 하고, 症狀으로 볼 때는 水腫이라고 한다.

(2) 洒淅: 차가운 물이 갑자기 몸에 뿌러지거나 차가운 바람이 갑자기 몸에 닿는 것을 형용하는 것으로 차가운 느낌을 말한다.⁵⁴⁾ * 洒: 灑也 물뿌릴 썰, * 淅: 雨聲 빗소리 석

(3) 頭眩: 眩暈, 眩運, 眩氣라고도 함. 眩은 눈앞이 아찔해지고, 暈은 머리가 펑펑 돌아가는 듯한 自覺症狀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眩暈을 目眩, 頭暈이라고도 한다.

(4) 葵子: 아욱의 씨를 말린 것이다.

54) 陳紀藩: 洒淅은 形容涼水突然洒在身上커나 或冷風突然吹到身上하야 那種寒冷感이라

【國譯】

妊娠 중에 水腫이 있어서 身重하고 小便이 잘 나가지 않고 물을 끼얹듯 오짝 오짝 찹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頭眩이 발생하면 葵子茯苓散으로 主治한다.

葵子茯苓散方

葵子一斤 茯苓三兩

以上の 두 가지 藥材를 가루를 내어 方寸匕 만큼 하루에 세 번 服用하는데 小便을 잘 보면 낫는다.

【考察】

본 條文은 妊娠水腫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水氣’가 病因으로 볼 때는 水氣라 하고, 症狀으로 볼 때는 水腫이라고 하니 後代의 伍와 李 등은 肢體浮腫의 증상이 포함된 것⁵⁵⁾⁵⁶⁾으로 보았다.

妊娠에 밖으로 水氣가 있으면 浮腫·瀰漸惡寒하고 水氣가 肌膚에 많이 쌓이므로 身重하게 되고, 안으로 水氣가 있으면 小便不利하고 水氣가 盛하여 陽氣의 上升을 막기 때문에 일어서면 頭眩하게 된다.⁵⁷⁾

따라서 妊娠水腫을 利水하는 것으로 治法으로 삼았으니 葵子是 利水하고 茯苓은 行水한다. 水氣가 除去되면 낫게 되므로 處方의 末尾에 “小便利則愈”라고 하였다. 그러나 葵子是 性質이 滑하기 때문에 妊娠禁忌의 藥材에 속하므로 小便이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服用을 그쳐야 한다.⁵⁸⁾

第 9條. 當歸散證

【原文】

婦人妊娠에 宜常服當歸散主之¹⁾라

55) 伍卓琪: 從有水氣로 及身重小便不利이 觀之컨대 可能尙有肢體浮腫現象이라

56) 李克光: 身重은 在此條엔 有兩種含義라 一是指水濕泛溢肌膚而身腫이오 二是因水濕滯溜肌體而感覺身體沈重이라

57) 吳謙 等: 妊娠에 外有水氣則浮腫瀰漸惡寒하고 水盛貯於肌膚 故로 身重이오 內有水氣則小便不利하고 水盛阻遏陽氣上升 故로 起即頭眩也라

58) 李克光: 但方中葵子是 其性滑利하야 屬妊娠禁忌之品 故로 小便通利則應停服이라

當歸散方

當歸一斤 黃芩一斤 芍藥一斤 芎藭一斤 白朮半斤

右五味를 杵爲散하야 酒飲服方寸匕²⁾호대 日再服³⁾

이라 妊娠에 常服即易¹⁾産하고 胎無苦疾하며 産後에 百病悉²⁾主之라

【校勘】

1) 婦人妊娠 宜常服當歸散主之: 『脈經·卷九·平妊娠胎動血分水分吐下腹痛證第二』에는 뒤에 “即易産無疾苦”가 더 있고, 「孤本」에는 “當歸散主之”가 “當歸散”으로 되어 있고, 「桂林古本」에는 “婦人妊娠 身無他病 宜常服當歸散 則臨産不難 産後亦免生他病”으로 되어 있다.

2) 酒飲服方寸匕: 「尤本」에는 “酒服方寸匕”로 되어 있다.

3) 日再服: 「桂林古本」에는 이 以下の 內容이 없다.

【注釋】

(1) 易: 不難, 쉬울 이

(2) 悉: 皆也, 다 실

【國譯】

婦人의 妊娠에 當歸散을 늘 服用하는 것이 좋다.

當歸散方

當歸 黃芩 芍藥 芎藭 各一斤 白朮半斤

以上の 다섯 가지 藥材를 가루를 내어 方寸匕만큼 술로 하루에 두 번 服用한다. 妊娠 중에 늘 服用하면 出産을 잘하고 胎兒에 苦疾이 없으며 産後의 모든 病도 治療한다.

【考察】

母體의 氣血이 胎兒를 養育하야야 하기 때문에 妊娠婦는 흔히 血虛하다. 血虛하면 반드시 榮分이 먼저 虛하게 되고 血分에 熱이 있으니 榮氣는 虛하고 血에 熱이 있으면 十中八九 妊娠婦의 病을 얻는다.⁵⁹⁾

또한 妊娠惡阻의 경우에서 보듯이 妊娠을 하면 脾胃가 運化되지 않아 濕이 발생되기 쉽다. 따라서 妊娠을 하게 되면 濕熱이 胎氣를 損傷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⁶⁰⁾ 그러므로 當歸·川芎·芍藥으로 養血하면서, 白朮로 濕을 除去하고, 黃芩으로 清熱하는 當歸散을 常服한다.

그러나 妊娠에 無病하면 반드시 服用할 필요가 없다. 만약 妊娠婦가 瘦瘠하면서 熱이 있으면 血을 耗損시켜 胎兒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⁶¹⁾ 따라서 “常服”이란 의미도 妊娠中 疾病이 발생된 경우로 限定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朱丹溪가 黃芩과 白朮은 安胎의 聖藥이라고 하였으나, 黃芩과 白朮이 安胎를 하는 것이 아니라 濕熱을 除去하여 正氣로 安胎가 되는 것이다.⁶²⁾

第 10條. 白朮散

【原文】

妊娠養胎¹⁾에 白朮散主之¹⁾라

白朮散方 見外臺

白朮 芎藭 蜀椒三分去汗²⁾ 牡蠣³⁾

右四味를 杵爲散하야 酒服一錢匕호대 日三服하고 夜一服⁴⁾이라 但苦痛엔 加芍藥하고 心下毒痛엔 倍加芎藭하고 心煩吐痛 不能食飲엔 加細辛一兩과 半夏大者二十枚하고 服之後에 更以醋漿水⁵⁾²⁾服之라 若嘔면 以醋漿水²⁾服之하고 復不解者는 小麥汁服之호대 已後渴者는 大麥粥服之라 病雖愈나 服之勿置³⁾라

【校勘】

59) 魏荔澗: 妊娠家は 必血虛也라 血虛則必先榮分虛하고 血虛且必有血分熱하니 榮虛血熱하면 又妊娠家十居八九之病也라

60) 尤怡: 妊娠之後엔 最慮濕熱傷動胎氣라

61) 吳謙 等: 妊娠無病하면 不須服藥이라 若其人瘦而有熱하면 恐耗血傷胎라

62) 尤怡: 丹溪稱黃芩白朮은 爲安胎之聖藥이라하나 夫芩朮이 非能安胎者오 去其濕熱而胎自安耳라

1) 妊娠養胎 白朮散主之: 「桂林古本」에는 “妊娠身有寒濕 或腹痛 或心煩 心痛 不能飲食 其胎蹇蹇動者 宜養之 白朮散主之”로 되어 있다.

2) 三分去汗: 「桂林古本」에는 “去目汗”으로 되어 있다.

3) 牡蠣: 「尤本」에는 “牡蠣三分”으로, 「桂林古本」에는 “各等分”으로 되어 있으나, 『外臺秘要 卷三十三·胎數傷及不長方』에는 “白朮 芎藭各四分 蜀椒三分汗 牡蠣二分”으로 되어 있어 國譯은 이를 따른다.

4) 夜一服: 「桂林古本」에는 이 以下의 內容이 없다.

5) 醋漿水: 『醫統本』·「尤本」·『金鑑』·「孤本」에는 “醋漿水”로 되어 있다.

【注釋】

(1) 養胎: 妊娠 중에 음식을 먹는 것을 비롯하여 日常生活에서 몸조리를 잘하여 妊娠經過를 순조롭게 하며 태아가 잘 자라도록 하게 하는 것.

(2) 醋漿水: 신 좁쌀죽 윗물을 말한다. (醋醬: 酸醬을 말한다.) 漿은 酢이다. 『本草綱目』에는 漿水を 酸漿이라고도 하였다. 嘉謨가 말하길 “불패에서 粟米를 익혀서 찬물에 5-6일 담가두면 맛이 시고 白花가 생기며 漿과 비슷한 색이 된다”⁶³⁾고 하였다. 현재 이 방법은 별로 쓰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漿水는 마시는 것의 總稱이다. 곧 물로 복용한다는 뜻이다.⁶⁴⁾

(3) 置: 棄也, 버릴 치

【國譯】

妊娠한 중에 養胎에는 白朮散으로 主治한다.

白朮散方(外臺秘要 卷三十三 胎數傷及不長方에 있다.)

白朮 芎藭各四分 蜀椒三分去汗 牡蠣二分

63)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7. p. 172.

64) 李克光: 漿은 酢也라 『本草綱目』稱 漿水又名酸漿이라 嘉謨云 “炊粟米熟하야 投冷水中하야 浸五六日이면 味酸하고 生白花 色類漿 故로 名”이라 此法現已少用이라 一般以 漿水爲 飲類之總稱이라 卽以水調服之意라

以上の 네 가지 藥材를 공이로 뿜아서 가루를 만들어 술로 一錢匕 만큼 낮에 세 번 밤에 한 번 服用한다. 痛症이 심하면 芍藥을 加味하고, 心下部가 痛症이 심하면 芎藭을 倍加하고, 心煩하고 嘔吐를 하며 아프고 飲食을 먹을 수 없으면 細辛一兩과 半夏 큰 것 二十枚를 加味한다. 服用한 뒤에 다시 醋醬水를 服用한다. 만약 嘔吐를 하여 醋醬水를 服用하였으나 낫지 않으면 小麥汁을 服用하고, 그 뒤에 渴症이 있는 사람은 大麥粥을 服用한다. 病이 비록 낫더라도 나머지를 그냥 버리지 말고 모두 服用한다.

【考察】

妊娠傷胎는 濕熱과 濕寒의 두 가지 類型이 있으니, 前條의 當歸散은 濕熱을 치료하고 여기의 白朮散은 白朮과 牡蠣는 燥濕하고, 川芎은 溫血하고, 蜀椒는 去寒하니 白朮散은 寒濕을 治療하는 方劑이며⁶⁵⁾ 이는 脾虛하여 健運하지 못하고 寒濕이 막히기 때문이다. 비록 原文에 症狀이 記載되어 있지는 않으나, 寒邪는 陰邪로서 性質이 凝滯하니 寒濕이 있으면 心腹部가 때로 아프고, 濕邪가 中焦를 막아 쌓여서 飲食을 消化하지 못하고 위로 넘치므로 嘔吐清涎하며 飲食을 먹지 못하고, 寒濕의 邪氣가 胞宮에 영향을 주어 胎兒가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胎動不安의 症狀이 있을 것⁶⁶⁾으로 思料된다.

原文을 보면 妊娠期間 동안에 養胎를 위해 白朮散을 常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脾虛하고 寒濕이 있어서 胎動不安한 경우에 쓸 수 있지, 無病하면 使用할 수 없으니 “養胎”라는 말에 拘碍될 필요는 없다.⁶⁷⁾

處方의 活套에 있어서 芍藥은 緩中하므로 苦痛이 있으면 加味하고, 川芎은 溫血하므로 寒濕으로 인해 甚한 痛症이 있으면 이를 倍加한다. 痰飲이 胸膈에

있어서 心煩吐痛하고 飲食을 먹지 못하므로 細辛으로 痰飲을 제거하고 水氣를 下降시키며 半夏로 消痰去水하고 복용한 뒤에 醋醬水를 복용하여 緩中한다. 만약 嘔吐가 있으면 醋醬水를 복용하면 嘔吐가 그치나 嘔吐가 그치지 않으면 小麥汁으로 和胃시킨다. 嘔吐가 그친 뒤 津液이 不足하여 渴症이 나면 生津止渴하는 大麥汁을 服用한다.⁶⁸⁾

第 11條. 傷胎

【原文】

婦人傷胎¹⁾하면 懷身²⁾에 腹滿 不得小便 從腰以下重¹⁾하야 如有水氣狀²⁾이라 懷身七月에 太陰이 當養이로대 不養하니 此는 心氣實이오 當刺瀉勞宮及關元하야 小便微利則愈라 見玉函³⁾

【校勘】

- 1) 從腰以下重: 『金鑑』에는 “從腰已下重”으로 되어 있다.
- 2) 如有水氣狀: 「尤本」에는 “如有水狀”으로 되어 있다.
- 3) 婦人傷胎……見玉函: 「桂林古本」에는 “婦人懷身七月 腹滿不得小便 從腰以下如有水狀 此太陰當養不養 心氣實也 宜瀉勞宮關元 小便利則愈”로 되어 있다. 國譯은 이를 따른다.

【注釋】

- (1) 傷胎: 妊娠 마지막 달에 性器에서 피가 보이는 것.
- (2) 懷身: 妊娠의 뜻.

【國譯】

婦人의 妊娠 七個月에 배가 그득하고 小便을 보지

65) 尤怡: 妊娠傷胎는 有因濕熱者하고 亦有因濕寒者하니 隨人藏氣之陰陽而各異也라 當歸散은 正治濕熱之劑니 白朮散에 白朮散 白朮牡蠣는 燥濕하고 川芎溫血하고 蜀椒去寒하니 則正治濕寒之劑也라

66) 張玉清 編著 胡庚辰 評注.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p. 416.

67) 陳紀藩.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 668.

68) 程林: 芍藥은 能緩中 故로 苦痛者加之오 川芎은 能溫血 故로 毒痛者倍之오 痰飲在胸膈 故로 令心煩吐痛하고 不能飲食하니 加細辛하야 破痰下水하고 半夏는 消痰去水하며 更服漿水以調中이라 若嘔者는 復用漿水服藥以止嘔라 嘔不止면 再易小麥汁和胃오 嘔止而胃無津液作渴者는 食大麥竹하야 以生津液이라

못하며 腰部 以下가 水腫처럼 부으면 이는 妊娠 七個月에 太陰經이 胎를 길러야 하나 길러주지 못하는 것이니 心氣가 實하기 때문이다. 勞宮穴과 關元穴을 瀉하여야 마땅하니 小便을 잘 보게되면 낫는다.

【考察】

본 條文은 心氣實로 인하여 傷胎된 證治를 논술하고 있다.

妊娠 7월에 心氣實하여 心火가 旺盛하게 되면 心火가 脾土를 생하지 않고 오히려 肺金을 乘하여 手太陰肺氣가 肅降하지 못하고 足太陰脾는 健運하지 못하게 되어 清氣는 위로 막히고 濁氣는 가운데서 막혀 아래에서 氣化가 되지 않아서 胞宮膨大되어 腹部脹滿에 이르게 되고, 膨大한 胞宮이 膀胱을 壓迫하여 小便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연히 下焦의 氣機가 막혀 運行되지 않기 때문에 허리 아래의 부위가 沈重한 느낌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流産의 可能性도 있게 된다.⁶⁹⁾ 이러한 症狀은 火克金의 現象이기 때문에 尤怡는 마치 水氣病과 같지만 水氣로 인한 病은 아니라고 하였다.⁷⁰⁾

尤怡는 胎兒가 損傷되어 發病하여 腹滿하고 小便을 보지 못하고 허리 아래 부분이 무거워 마치 水氣病과 같지만 水氣로 인한 病은 아니고 心氣가 實하기 때문이라 하였으나⁷¹⁾, 吳謙 등은 錯簡이라 하여 注釋하지 않았으며⁷²⁾, 唐宗海는 文章이 倒置된 것으로 婦人이 傷胎되는 것은 대개 妊娠腹滿·小便不利·腰以下重하여 水氣病과 비슷한 症狀이 있어서 胎傷에 이르게 된 것이라⁷³⁾ 하였다.

以上을 종합해 보면, 「桂林古本」에 “婦人懷身 七月 腹滿不得小便 從腰以下如有水狀 此太陰當養不養 心氣實也 宜瀉勞宮關元 小便利則愈”로 되어 있는 것이 본래의 意味를 가장 잘 나타낸 것으로 思料된다.

IV. 總括 및 結語

본편은 妊娠病의 妊娠惡阻, 妊娠腹痛, 妊娠下血, 妊娠小便不利, 妊娠水氣 및 胎動不安에 대하여 論述하였다.

妊娠의 診斷은 脈診의 內容을 주로 삼았는데, “陰脈小弱”이라 하여 尺脈에 小弱脈이 나타나는 것을 妊娠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脈象으로만 拘碍되어서는 안되며, 뒤에 “其人渴 不能食 無寒熱”의 句節과 같이 經水 등 諸般事項을 參照하여야 한다.

妊娠惡阻는 妊娠初期에 자주 나타나는 反應으로 輕한 경우에는 治療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消失되나 重한 경우에는 胎兒에 影響을 주어 墮胎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治療를 해야 한다. 治療의 경우 脾胃가 機能에 障礙를 받아 營衛氣가 調和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桂枝湯으로 營衛를 調和시키고, 脾胃가 虛弱하므로써 寒飲이 안에서 盛하여 嘔吐가 멈추지 않으면 乾薑人參半夏丸을 사용하였다.

妊娠腹痛은 陽虛寒盛하여 腹痛惡寒의 症狀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溫陽祛寒의 治法으로 附子湯을 사용하고, 衝任脈이 虛寒하여 腹痛下血 등의 症狀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溫經暖宮의 治法으로 膠艾湯을 사용하고, 肝과 脾가 調和를 이루지 못하여 腹痛頭昏 등의 症狀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養肝健脾의 治法으로 當歸芍藥散을 사용하였다.

妊娠下血은 癥瘕가 있어 발생된 경우에는 祛瘀除癥의 治法으로 桂枝茯苓丸을 사용하고, 衝任脈이 虛寒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溫經暖宮의 治法으로 膠艾湯을 사용한다.

妊娠小便不利는 虛熱이 鬱滯되어 小便不利한 경우에는 養血潤燥의 治法으로 當歸貝母苦參丸을 사용

69) 張玉清 編著 胡庚辰 評注.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pp. 417-418.

70) 尤怡: 傷胎는 胎傷而病也라 腹滿不得小便 從腰以下重하여 如有水氣나 而實非水也라 所以然者는 心氣實故也라

71) 尤怡: 傷胎는 胎傷而病也라 腹滿不得小便 從腰以下重하여 如有水氣나 而實非水也라 所以然者는 心氣實故也라

72) 吳謙 等: 文義未詳이라 此穴刺之하면 落胎하니 必是錯簡이니 不釋이라

73) 唐宗海: 尤註에 胎傷而病이라하니 是言胎傷之後에 乃有腹滿等證이라 然則傷胎之證은 究何哉在아 不知仲景是言先有腹滿等證 然後에 傷胎하니 特其文法倒裝 故로 致錯註라 蓋其文法에 言婦人所以傷胎者는 多由是懷身腹滿 小便不利 腰以下重하여 如有水氣하니 卽致胎傷之證也라

하고, 氣化가 障碍를 받아 水濕이 內部에 停滯되어 小便不利한 경우에는 利水通陽의 治法으로 葵子茯苓散을 사용한다.

胎動不安은 血虛濕熱로 인한 경우에는 養肝益脾하고 清熱除濕의 治法으로 當歸散을 사용하고, 脾虛寒濕으로 인한 경우에는 健脾除濕하고 溫中安胎의 治法으로 白朮散을 사용한다.

第 1條의 “如吐下者”는 “加吐下者”의 의미로 嘔吐와 泄瀉의 증상이 나타난 뜻이며, “其人渴”의 ‘渴’은 惡心嘔吐로 입맛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第 9條의 “宜常服”과 第 10條의 “養胎”는 妊娠中 疾病이 발생된 경우로 限定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第 11條의 原文은 「桂林古本」의 내용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11條의 原文에 “懷身七月 太陰當養”의 句節로 미루어 보건대 十月養胎에 관한 내용인데 전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으나, 後代의 『諸病源候論』과 『千金要方』 및 『婦人大全良方』 등에 이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다.

『諸病源候論』에 “妊娠一月 名曰始形……妊娠二月 名曰始膏……妊娠三月 始胎……妊娠四月之時始受水精……妊娠五月 始受火精……妊娠六月 始受金精……妊娠七月 始受木精……妊娠八月 始受土精……妊娠九月 始受石精……妊娠十月 五藏俱備 六府齊通……”이라 하였고, 『千金要方』에 “妊娠一月 始胎二月始膏 三月始胎 四月形體成 五月能動 六月筋骨立 七月毛髮生 八月藏府具 九月穀氣入胃 十月諸神備”라 하였다. 둘 사이에 비록 詳略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受精卵의 着床으로부터 胎兒發育의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思料된다.

十月養胎의 順序에 대하여 『婦人大全良方』에는 一月과 二月은 각각 肝과 膽으로 木에 屬하고, 三月과 四月은 心主와 三焦로서 火에 屬하고, 五月과 六月은 脾와 胃로서 土에 屬하고, 七月과 八月은 肺와 大腸으로 金에 屬하고, 九月은 腎으로서 水에 屬하고, 十月은 腹中에 있는 胎兒가 모든 臟氣의 培養

을 充足하게 받은 뒤에 時期를 기다려 태어난다⁷⁴⁾고 하여 四時의 變化에 따른 五行의 順序로 설명하였다.

또한 『婦人大全良方』의 妊娠門에 「妊娠隨月數服藥及將息法第一」에 妊娠一月에 烏雄鷄湯補胎方, 二月에 艾湯黃連湯, 三月에 雄鷄湯茯苓湯, 四月에 菊花湯調中湯, 五月에 阿膠湯安中湯安胎當歸湯, 六月에 麥門冬湯柴胡湯, 七月에 蔥白湯杏仁湯, 八月에 芍藥湯葵子湯, 九月에 半夏湯猪腎湯이 소개되어 있고 각각의 處方에 主治證이 기록되어 妊娠婦에 異常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⁷⁵⁾ 미루어 보면 단순히 月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養胎의 意味는 직접 胎兒의 發育을 增進에 하는 것이 아니라 胎兒의 發育에 障碍를 주는 要因을 除去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로 보아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이상을 살펴보면 十月養胎는 五行의 相生順序에 따라 成長하는 胎兒의 發育에 障碍를 주는 要因을 除去함으로써 胎兒를 保護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V. 參考文獻

<단행본>

1. 고재승 외 17명. 인체발생학. 범문사. 서울. 2003.
2. 曹家達. 金匱要略發微. 志遠書局. 臺北. 2003.

74) 婦人大全良方: 且四時之令은 必始於春木 故로 十二經之 養이 始於肝也니 所以一月二月이라 手心主는 心包絡脈也 오 手少陽은 三焦脈也오 屬火而旺旺하니 所以胎養在三月 四月이라 屬水少陰心 水太陽小腸者는 以君主之官으로 無爲而尊也라 足太陰은 脾脈也오 足陽明은 胃脈也며 屬土而 旺長夏하니 所以養胎而五月六月이라 手太陰은 肺脈也오 手陽明은 大腸脈也며 屬金而旺秋하니 所以養胎在七月八月 이라 足少陰은 腎脈也며 屬水而旺冬하니 所以養胎在九月 이라 又況母之腎臟繫於胎하니 是母之眞氣는 子之所賴也라 至十月하야 兒於母腹之中에 受足諸臟氣脈所養 然後에 待時而生이라

75)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5. pp. 327-338.

3.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增訂 韓醫學大辭典, 정담, 서울, 2001.
4. 張三植, 大漢韓辭典, 集文堂, 서울, 2001.
5.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6. 吳大眞 總編, 中醫辭海上,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7. 尤怡,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8. 王肯堂, 證治準繩,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9. 郭霽春·王玉興, 金匱要略校注語譯,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10. 吳大眞 總編, 中醫辭海上,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11. 民族文化研究所, 中韓辭典, 高麗大學校, 서울, 1998.
12. 孫思邈 著·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13. 魏荔澍,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14. 趙以德·周楊俊, 中國醫學大成·傷寒金匱分冊 金匱玉函經二注,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15. 伍卓琪, 金匱婦科研究, 國立中國醫藥研究所, 臺北, 1997.
16. 王燾, 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17. 李彭,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6.
18.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19. 朱櫛 撰, 普濟方, 大星文化社, 서울, 1995.
20. 趙佶,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21.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서울, 1994.
22.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 力行書局有限公司, 臺北, 1994.
23. 楊思澍·張樹生·傅景華, 中醫臨床大全,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1.
24. 金赫濟·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集文堂, 서울, 1991.
2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가치, 서울, 1990.
26. 陳念祖, 金匱要略淺註, 綜合出版社, 台南, 1990.
27. 陶華, 傷寒六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28.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29.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30.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 香港, 1987.
31.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87.
32.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南山堂, 서울, 1987.
33.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5.
34.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5.
35.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4.
36.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民衆書林, 서울, 1984.
37. 巢元方 著·南京中醫學院編, 諸病源候論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38. 蔡仁植·權賢德·邊元九, 漢方醫學用語大辭典, 癸丑文化社, 서울, 1983.
39.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3.
40. 陳夢雷 等編, 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41.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42. 王叔和, 影宋版 脈經, 東洋醫學研究院, 大板, 1981.
43. 張仲景, 桂林古本 傷寒雜病論, 廣西人民出版社, 廣西, 1980.
44. 王懷隱 等, 太平聖惠方, 翰成社, 서울, 1978.

45. 宋炳基. 漢方婦人科學. 행림출판. 1978. 서울.
46. 張仲景 著,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金匱要略方論. 裕昌德書局. 臺北. 1960.
47. 中醫研究院·廣東中醫學院. 中醫名詞述語辭典. 知識出版社. 香港. 年度未詳.

K C I